2016.5.16. VOL.12

TRADE BRIEF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동향분석실
강 내 영 연구원 02-6000-5259, nykang87@kita.net

도약의 역사 새로운 미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對중국 수출 언제 회복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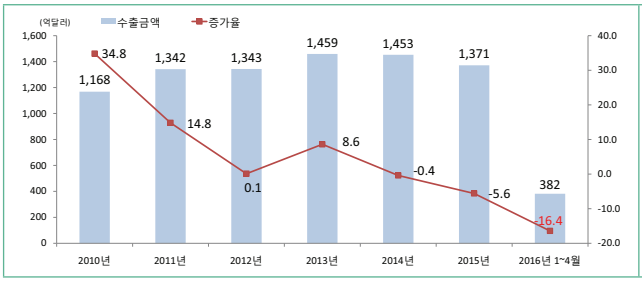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세로 올해 1~4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했다. 수출기업(395개사)은 지금의 對中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제조업 경기 하락과 저유가 외에도 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와 중국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꼽았다. 동시에 우리기업은 對中 수출 회복시점을 금년 30.6%, 내년 26.8%로 응답하여 우리의 對中 수출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재(40.9%)가 원부자재 수출기업(25.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내륙 중소도시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50.0%가 금년 중 수출이 회복된다고 응답하여 대도시로 수출하는 기업(35.8%)을 상회했다.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소비재가 원부자재보다, 내륙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나, 對중국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소비패턴 변화를 잘 활용해 내륙 중소도시로의 소비재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1. 對중국 수출 동향

◉ 올해 1~4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한 382억 달러를 기록

- 對중국 수출은 2010년(34.8% 증가)을 정점으로 하락세, 2014년부터는 감소 전환
- 對중국 수출비중은 총수출의 25%로 對중국 수출부진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부진으로 이어짐

한국의 對중국 수출금액 및 증가율 추이



한국의 對中, 대세계 수출증가율 추이 비교

자료 : 한국무역협회

◉ 對중국 수출부진 원인은 중국의 성장정책 변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우리의 수출단가 하락 등임

- 중국의 GDP가 6%대 성장을 보인 가운데 수입은 감소 지속

* 중국 GDP 성장률(%) : 6.9('15.4Q) → 6.7('16.1Q)

** 중국 수입증가율 추이(%) : -21.4('15.1Q) → -16.9(2Q) → -18.1(3Q) → -17.3(4Q) → -12.7('16.1Q)

- 반면 EU(독일 등) 및 ASEAN(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對중국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

  *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증가율('16년 4월 기준, %) : 한국(-14.4), 일본(-6.7), 미국(-11.9), 독일(-1.8), 태국(-7.7), 프랑스(-9.3), 베트남(47.6), 인도네시아(-9.7) 등

◉ 금년 3월 중국의 수출은 9개월 만에 증가세(11.2%)로 반전되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유류제품과 전기 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투자·수출·제조업 회복세가 나타나는 동시에 신규 등록 기업수가 증가하는 등 2016년 1분기 각종 지표들도 동반 호조세

  - 금년 3월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49.0에서 반등하여 50.2를 기록

- 중국의 수출과 우리 對중국 수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중국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기업이 보는 對中 수출부진 요인, 경쟁현황, 회복시점 점검 필요

02. 수출기업이 보는 對중국 수출부진 요인[1)]

응답기업 현황

□ 품목별

- (1차산업) 농수산물(9.4%)
- (경공업) 플라스틱(9.9%), 섬유(10.5%)
- (중화학공업) 가전(1.4%), 기계(18.2%), 반도체(2.6%), 석유제품(1.6%), 선박(1.4%), 의료·정밀기기(5.9%), 자동차 부품(8.1%), 전기·전자(8.5%), 철강(9.7%), 화학공업(10.4%), 무선통신기기(2.2%)

□ 수출품목 용도별

- (원부자재) 중국기업용(35.6%), 한국기업용(18.0%)
- (소비재 판매 권역) 대도시(17.4%), 중소도시(11.2%)

[품목별]

◉ 수출 기업이 보는 對중국 수출 부진 주된 요인은 가격경쟁력(47.3%)과 경기요인(39.8%)임

- 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57.9%)와 위안화 약세(36.6%) 영향이 가격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응답

  - 전 품목에서 바이어 단가인하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안화 약세 영향은 석유제품, 기계, 선박, 철강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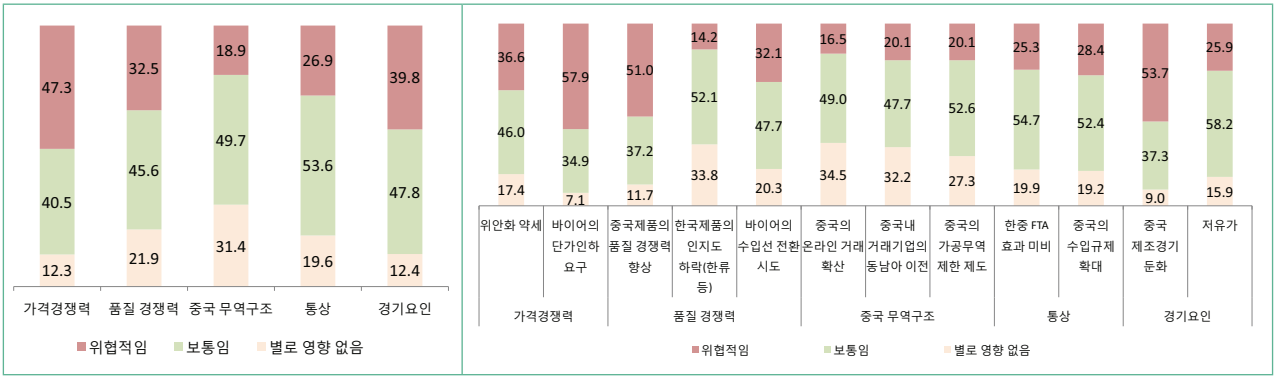
- 수출기업은 중국 제조경기 둔화(53.7%)와 저유가(25.9%)에도 對중국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

  - 중국 제조경기 둔화 영향은 전 품목에서 받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플라스틱, 기계에서 영향이 큼

1) 지난 3월7일부터 10일간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對중국 수출기업(응답업체 626개사)를 대상으로 對중국 수출부진 요인과 회복시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임

對중국 수출 부진 요인 분석

(단위 : 응답구성비, %)



◉ 그 외 기업들은 품질경쟁력(32.5%), 통상이슈(26.9%), 중국무역구조 변화(18.9%)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나, 세부 부진요인별·품목별로는 그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남

- 가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ICT 제품들은 중국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51.0%)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중국제품과 경쟁력 심화로 對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들 ICT 품목은 중국 내 거래기업이 동남아로 이전한 것과 중국 가공무역 제한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

- 의료·정밀기기, 화학공업제품, 농수산물,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은 중국의 수입규제 확대(28.4%)가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

품목별 對중국 수출 부진 이유

(단위 : 응답구성비, %)

품목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중국무역구조	통상	대외변수	계
가전	23.5	32.4	20.6	5.9	17.6	100.0
기계	28.1	26.3	12.3	10.5	22.8	100.0
농수산물	24.1	23.4	13.5	20.6	18.4	100.0
반도체	26.0	28.0	20.0	12.0	14.0	100.0
석유제품	22.9	25.7	11.4	11.4	28.6	100.0
선박	33.3	44.4	11.1	0.0	11.1	100.0
섬유	24.2	35.2	18.0	7.0	15.6	100.0
의료·정밀기기	22.1	21.3	13.9	23.0	19.7	100.0
자동차부품	23.1	23.1	11.0	17.6	25.3	100.0
전기·전자	25.0	27.1	16.4	11.4	20.0	100.0
철강	22.8	19.3	14.9	20.2	22.8	100.0
플라스틱	25.0	26.4	14.3	12.1	22.1	100.0
화학공업	26.7	23.3	11.3	16.0	22.7	100.0
무선통신기기	17.3	19.2	32.7	11.5	19.2	100.0
계	24.8	25.5	14.8	14.1	20.9	100.0

주 :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체수의 비중

[수출제품의 용도별[2)]]

◉ 소비재 수출기업 중에서 내륙 중소도시로 수출하는 기업이 대도시로 수출하는 기업보다 수출부진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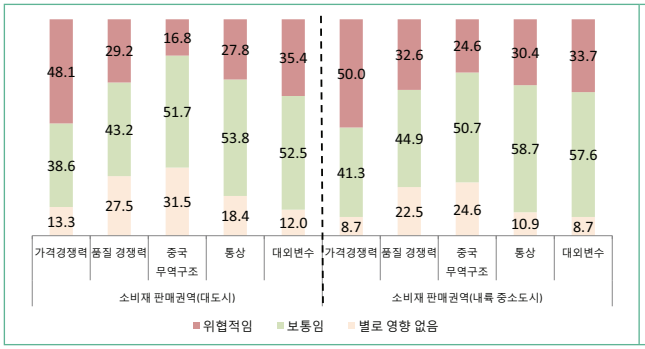
＊ 소비재 수출 기업은 對중국 수출부진 요인을 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60.8%), 중국제조업경기 둔화(46.4%), 중국제품 품질경쟁력 향상(45.6%), 위안화 약세 영향(36.8%), 중국 수입규제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

● 원부자재는 한국 투자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중국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비해 수출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원부자재 수출 기업은 모두 중국 제조업경기 둔화(59.6%)를 가장 큰 수출부진 요인으로 꼽았으며, 바이어 단가인하 요구(58.3%), 중국제품 품질경쟁력 향상(54.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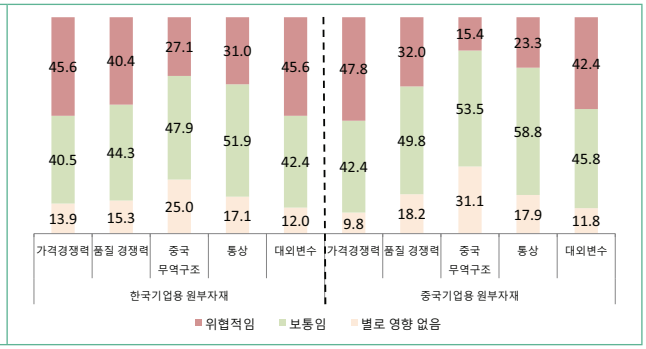
소비재 對중국 수출 부진 요인

(단위 : 응답구성비, %)



원부자재 對중국 수출 부진 요인

(단위 : 응답구성비, %)



03. 對중국 수출 경쟁기업

[품목별]

◉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는 對중국 수출 경쟁기업으로 중국기업(41.5%), 아세안기업(14.2%), 일본기업(11.9%) 등의 순으로 응답

● 이어서 EU기업(6.6%), 미국기업(6.3%), 인도기업(2.0%) 등이며, 우리 기업이 최대 경쟁상대라는 응답도 11.1%를 차지

● 중국기업을 최대 경쟁기업이라고 응답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61.5%), 전기전자(57.9%), 석유제품(57.1%), 화학공업(43.9%), 반도체(43.8%), 자동차부품(42.3%), 기계(42.3%), 무선통신기기(40.0%) 등임

● 가전제품은 EU, 아세안 기업과 경쟁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25.0%로 나타나, 중국 시장에서 선진국, 개도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소비재는 대도시에서의 소비용과 내륙 중소도시에서의 소비용으로, 원부자재의 경우에는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납품과 현지 중국기업에 납품 등으로 분류

품목별 對중국 수출시 경쟁기업 국적 현황

(단위 : 응답구성비, %)

품목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아세안	중동	중남미	러시아	인도	기타	계
가전	0.0	12.5	25.0	12.5	12.5	25.0	0.0	0.0	0.0	0.0	12.5	100.0
기계	10.3	14.1	9.0	42.3	6.4	7.7	1.3	1.3	1.3	0.0	6.4	100.0
농수산물	13.2	15.8	5.3	21.1	18.4	18.4	0.0	0.0	2.6	0.0	5.3	100.0
반도체	6.3	12.5	0.0	43.8	18.8	12.5	0.0	0.0	0.0	0.0	6.3	100.0
석유제품	0.0	0.0	14.3	57.1	0.0	14.3	0.0	0.0	0.0	14.3	0.0	100.0
선박	0.0	40.0	0.0	20.0	40.0	0.0	0.0	0.0	0.0	0.0	0.0	100.0
섬유	9.1	9.1	3.0	33.3	12.1	27.3	0.0	0.0	0.0	6.1	0.0	100.0
의료·정밀기기	10.3	10.3	13.8	34.5	17.2	6.9	0.0	0.0	0.0	3.4	3.4	100.0
자동차 부품	7.7	7.7	7.7	42.3	11.5	15.4	0.0	0.0	0.0	3.8	3.8	100.0
전기·전자	0.0	10.5	5.3	57.9	10.5	5.3	2.6	0.0	0.0	2.6	5.3	100.0
철강	3.7	14.8	7.4	37.0	7.4	14.8	7.4	3.7	0.0	3.7	0.0	100.0
플라스틱	2.6	12.8	2.6	61.5	5.1	12.8	0.0	2.6	0.0	0.0	0.0	100.0
화학공업	2.4	7.3	4.9	43.9	14.6	19.5	2.4	0.0	0.0	2.4	2.4	100.0
무선통신기기	0.0	10.0	0.0	40.0	0.0	40.0	0.0	0.0	0.0	0.0	10.0	100.0
계	6.3	11.9	6.6	41.5	11.1	14.2	1.3	0.8	0.5	2.0	3.8	100.0

[수출제품의 용도별]

◉ 對중국 소비재, 원부자재 수출기업 모두 중국 현지기업을 최대 경쟁상대로 꼽은 가운데 원부자재 수출기업이 소비재보다 중국기업과 경쟁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기업을 최대 경쟁기업으로 응답한 수출기업 비중 : 소비재(37.0%) , 원부자재(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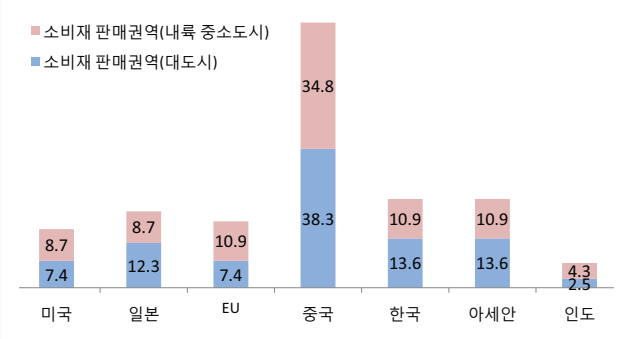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이 내륙 중소도시보다 중국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심하다고 응답함

* 경쟁기업 국적별 대도시로의 소비재 수출기업 비중 : 중국(38.3%), 아세안(13.6%), 한국(13.6%)
* 경쟁기업 국적별 내륙 중소도시로의 소비재 수출기업 비중 : 중국(34.8%), 아세안(10.9%), 한국(10.9%)

● 원부자재는 한국 투자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국기업을 제외하면 아세안기업(20.3%)이, 현지 중국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일본기업(15.1%)이 최대 경쟁상대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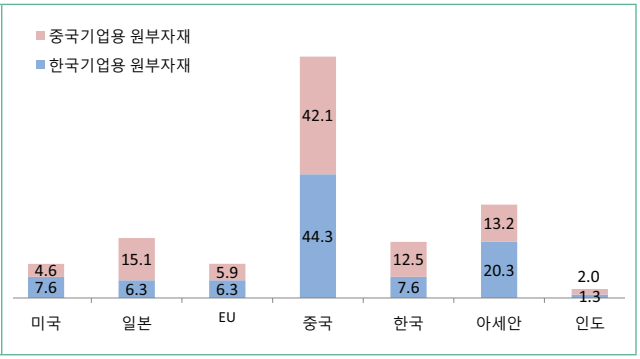
소비재 경쟁기업 국적 현황

(단위 : 응답구성비, %)



원부자재 경쟁기업 국적 현황

(단위 : 응답구성비, %)



주 : 비중은 소비재별, 원부자재별로 합계가 100.0

04. 對중국 수출회복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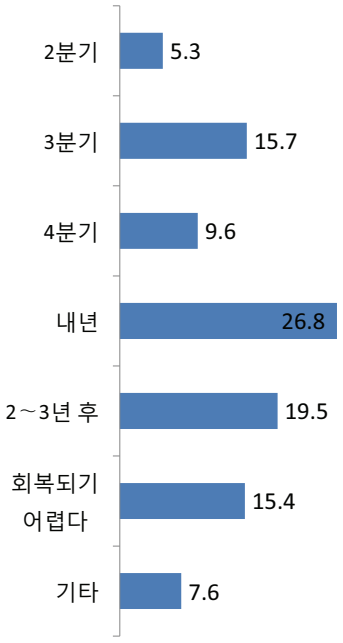
[품목별]

◉ 설문에 응답한 對중국 수출기업의 30.6%가 금년 중 對중국 수출이 회복된다고 응답. 그 외 2017년 회복(26.8%), 2~3년 후(19.5%), 회복되기 어렵다(15.4%) 순으로 응답

- 기계, 농수산물, 섬유, 의료·정밀기기, 플라스틱 등의 수출기업들이 금년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의료·정밀기기 수출기업 55.2%가 금년 중 對중국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품목별 對중국 수출 회복 시점 전망

(단위 : 응답구성비, %)



품목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2~3년 후	회복되기 어렵다	기타	계
가전	12.5	0.0	0.0	25.0	25.0	37.5	0.0	100.0
기계	5.1	15.4	10.3	30.8	17.9	12.8	7.7	100.0
농수산물	10.5	18.4	15.8	28.9	15.8	2.6	7.9	100.0
반도체	0.0	12.5	0.0	18.8	25.0	31.3	12.5	100.0
석유제품	0.0	14.3	0.0	57.1	14.3	14.3	0.0	100.0
선박	0.0	20.0	20.0	20.0	0.0	40.0	0.0	100.0
섬유	9.1	15.2	15.2	3.0	18.2	21.2	18.2	100.0
의료·정밀기기	3.4	44.8	6.9	24.1	6.9	10.3	3.4	100.0
자동차 부품	7.7	15.4	3.8	34.6	19.2	15.4	3.8	100.0
전기·전자	2.6	7.9	5.3	28.9	23.7	18.4	13.2	100.0
철강	7.4	7.4	7.4	33.3	29.6	7.4	7.4	100.0
플라스틱	2.6	15.4	15.4	25.6	20.5	17.9	2.6	100.0
화학공업	2.4	14.6	12.2	29.3	26.8	7.3	7.3	100.0
무선통신기기	10.0	0.0	0.0	20.0	10.0	60.0	0.0	100.0
계	5.3	15.7	9.6	26.8	19.5	15.4	7.6	100.0

[수출제품의 용도별]

◉ 소비재 수출기업이 원부자재 기업에 비해 對중국 수출회복 시점이 빠를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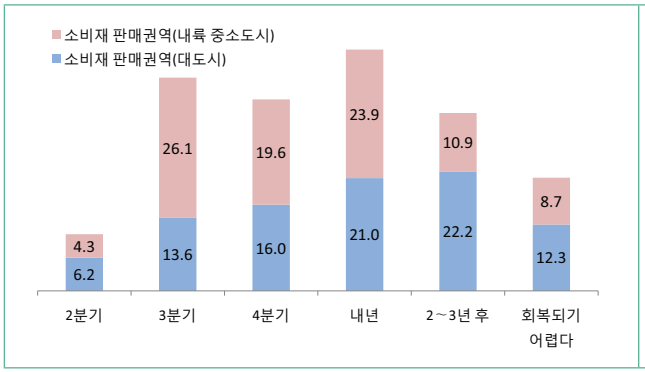
-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주로 내륙 중소도시로 수출하는 기업의 50.0%가 금년 중에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도시용 제품 수출기업은 35.8%가 그렇다고 응답

  * 9~10%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내륙지역은 소비재 및 원부자재 중심으로 수입수요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소비재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원부자재는 현지 한국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가운데 21.5% 만이 금년 중에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 반면 중국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27.0%가 금년 중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현지 한국기업보다 중국기업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회복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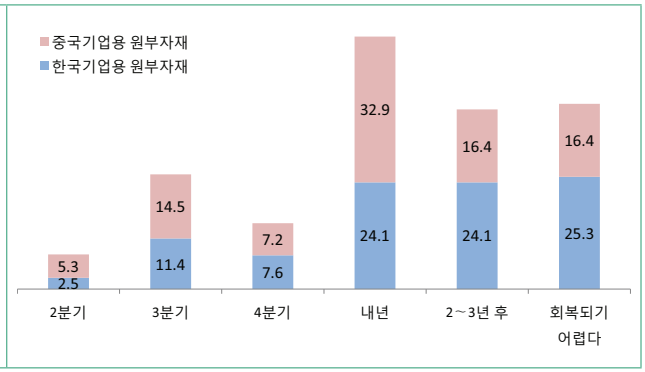
소비재 수출 회복시점 전망

(단위 : 응답구성비, %)



원부자재 수출 회복시점 전망

(단위 : 응답구성비, %)



주 : 비중은 소비재별, 원부자재별로 합계가 100.0

05. 요약 및 시사점

◉ 對중국 수출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1~4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하며 부진 지속

＊ 대중국 수출증가율(%) : 11.5('08) → 34.8('10) → 0.1('12) → -0.4('14) → -16.4('16.1~4월)

◉ 對중국 수출기업(395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요인 외에도 가격경쟁력(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 위안화 약세)과 중국제품 품질경쟁력 향상을 지적

- 전 품목에서 바이어의 단가인하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ICT 제품은 중국제품과의 품질경쟁력 심화로 對중국 수출에 차질
- 소비재 수출기업은 바이어의 단가인하 요구 영향이, 원부자재 기업은 중국 제조업경기 둔화가 수출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

◉ 우리 기업은 對中 수출 최대 경쟁기업으로 중국기업, 아세안기업, 일본기업을 차례로 지적

- 대부분 품목에서 중국 현지기업을 최대 경쟁기업으로 응답했으며 가전제품은 EU, 아세안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전제품의 최대 경쟁기업 국적 비중 : EU(25.0%), 아세안(25.0%), 중국(12.5%), 일본(12.5%), 한국(12.5%)

- 對중국 원부자재 수출기업이 소비재보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응답

◉ 對중국 수출 회복시점에 대한 설문에 금년(30.6%), 내년(26.8%), 2~3년 후(19.5%) 순으로 응답하여, 우리기업들은 대중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의료·정밀기기, 섬유, 플라스틱, 농수산물에서 對중국 수출이 금년 중 회복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선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선박은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주를 이룸
- 對중국 소비재 수출 회복시점이 원부자재에 비해 빠를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을 증가세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① 중간재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하고, 소비재를 중심으로 서부내륙에 대한 시장진출노력과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응답결과 소비재는 수출회복 기대감이 높고 중국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음

② 서비스와 제조업을 결합한 새로운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

- 중국의 내수·서비스 중심의 성장전략 변화는 향후 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예 : 의료서비스 수출시 의료기구와 약품도 수출

  ** 중국 제조업의 GDP 성장률은 6%이하, 서비스업은 8%이상의 고도성장이 예상됨

③ 중국에 대한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해 중국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가성비와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전략이 필수

- 80후(後)·90후(後), 대도시·중소도시 소비시장 등 점차 다원화되어가는 新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활용

④ 13.5 계획의 산업별 구조조정 전략,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혜택을 받는 신흥 유망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출 전략이 요구

  * 13.5 계획 8개 키워드 : 성장세 유지, 빈곤지역 해결,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조화로운 발전, 경제개혁, 농업현대화,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산업구조 조정, 경제성장방식 전환

- 향후 IT제품(인터넷혁신), 의료기구(노인인구 증가), 유아용품(2자녀 정책), 에너지 절감형 제품(녹색성장 전략)이 對중국 수출 유망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강내영 (02-6000-5259, nykang87@kita.net)